관심사 독해 2026-11-13: 죽음 앞의 자기, 대학 일자리, 가족의 재정의

2026년 11월 12일 수집분

8편을 읽고 6편을 골랐다. 존재의 가치와 미래의 자기를 묻는 두 편의 심리·철학 글, 인공지능 시대의 대학 채용, 철학적 경청의 한계, 미국 반평등주의의 정치경제, 가족을 다시 정의하는 일본 소설 서평이 이번 판의 축이다.

중요하다는 감각은 세계와의 공명이다

Experimental Theology — Mattering as Resonance

정신건강을 부정적 감정의 조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글이다. “공명(resonance)”은 사회학자 하르트무트 로자의 개념으로, 세계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는 관계를 뜻한다.

[사실] 저자는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중요함(mattering)”을 자기 존재와의 공명으로 설명한다. 사람은 자기 존재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스스로를 돌봐야 할 존재로 대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인정을 주고받기를 기대한다. 반대로 자기 존재가 더 이상 가치 있는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사람은 자신을 관리하거나 최적화할 대상으로만 보며 자기 소외와 세계로부터의 단절에 빠진다. 저자는 외로움, 우울, 불안, 절망을 이런 공명 상실과 연결한다.

[해석] 이 설명의 힘은 존엄을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주고받는 관계로 바꿔 놓는 데 있다. 나는 나를 돌보고, 타인의 가치를 인정하며, 타인에게서도 같은 인정을 기대한다. 다만 “중요하다는 감각”은 지지와 성취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심리 상태이므로, 치료 목표가 언제나 강한 자기긍정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곧장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 글은 그보다 정신건강 논의에서 관계와 의미의 회복을 별도의 축으로 둬야 한다는 더 신중한 주장으로 읽힌다.

10년 뒤의 내가 꼭 나여야 하는가

Schwitz Splinters — Why Do I Want Myself in Particular to Exist in Ten Years?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살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철학적으로 해명하려는 글이다. 개인의 병력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를 잇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다.

[사실] 저자는 먼저 미래의 즐거움, 가족과의 관계, 철학 연구를 차례로 검토한다. 어느 것도 “바로 이 사람이 10년 뒤에 존재해야 한다”는 감정의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신체·기억·계획의 인과적 연속성을 들여다본다. 배운 것을 기억하고 세운 계획이 미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 때 현재의 행동은 더 큰 의미를 얻는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반드시 10년이라는 길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짧아진 미래에 맞춘 계획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현재의 경험을 더 무겁게 만든다. 마지막에는 생존 욕구가 추가 정당화가 없는 기본적 욕구일 가능성을 인정한다.

[해석] 이 글의 특징은 위로를 서두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고 싶은 일 목록”도, 가족에 대한 책임도, 학문적 사명감도 생존 욕구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고백은 오히려 죽음 앞의 욕망을 더 정직하게 보여준다. 동시에 저자는 욕구를 부정하기보다 가볍게 쥐는 태도를 제안한다. 살고 싶다는 바람을 인정하되, 그 바람이 이성적 필연인 척하지 않는 것이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도 관계와 계획의 의미는 남는다는 결론은 절제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다.

이론 컴퓨터과학 채용의 이상한 역설

Computational Complexity — Fall Jobs Post 2026

인공지능(AI) 확산, 대학 재정 압박, 비자와 연구비 정책이 겹친 시기의 학계 채용을 읽는 글이다. 이론 컴퓨터과학은 알고리즘과 계산 가능성을 연구하는 분야로, 산업계 인공지능 붐과 직접 같지 않지만 대학의 컴퓨터과학 정책 변화를 함께 겪는다.

[사실] 저자는 컴퓨터과학 졸업생의 취업 시장과 학부 등록이 악화하고 있지만, 재정이 좋은 일부 대학은 오히려 여러 교원 자리를 내고 있다고 관찰한다. 그 결과 최상위권 지원자는 좋은 자리를 찾겠지만 중간층 지원자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위 대학이 중위권 대학보다 채용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역설이 생긴다. 대학 재정 격차, 인구 감소, 고등교육에 대한 회의, 연구비와 비자 정책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덧붙인다. 지원자에게는 인공지능 관련 연구·교육 경험을 분명히 설명하고, 온라인 자료와 짧은 연구 소개 영상을 준비하며, 채용 게시판과 인맥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해석] “상위권은 더 쉽고 중간권은 더 어렵다”는 진단은 저자가 밝히듯 체계적 통계가 아니라 일화적 관찰에 가깝다.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타당하다. 재정 여력이 있는 대학만 새 학과와 인공지능 전공을 만들 수 있으면 채용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지원자에게 필요한 전략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 연구가 새 커리큘럼과 계산 문제를 어떻게 지탱하는지 보여주는 일이다. 이 글은 취업 요령보다 대학 내부의 재정 격차가 지식 생산의 지도까지 바꾼다는 점을 보여준다.

철학에서도 ‘진단’은 필요하다

Daily Nous — Listening and Diagnosing (guest post)

여기서 “진단”은 의학적 병명만이 아니라, 어떤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파악해 신호와 잡음을 구별하는 해석 도구를 뜻한다. 철학은 보통 상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진지하게 다루는 훈련을 강조하는데, 이 글은 그 태도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를 다룬다.

[사실] 저자는 강박장애(OCD)를 가진 학생이 회의주의 논증에 몰두하자 어머니가 그 걱정의 출처를 짚어 준 사례로 시작한다. 이 진단은 논증에 답하는 대신 그것을 잠시 무시할 근거를 준다. 일상에서도 술, 피로, 긴장 같은 상태가 말의 무게를 바꾼다. 철학은 이런 진단을 밀어내고 주장 자체에 답하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지만, 저자는 그 태도가 지나치면 논증의 실제 구조를 오히려 놓친다고 말한다. 학파적 훈련, 언어 습관, 단순한 실수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 일부 표현을 걸러 읽는 편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다만 진단에는 판단이 필요하고, 무엇이 핵심이고 부수적인지에 대한 disagreement, 곧 “불협(discord)”이 생긴다.

[해석] 이 글은 “상대를 심리화해 무시하라”는 주장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출처만 보고 무시하는 것 사이에서 판단력을 요구한다. 철학의 존중 문화는 귀중하지만, 해석자는 때때로 어떤 표현이 핵심 주장이 아니라 훈련의 잔재인지 구분해야 한다. 반대로 진단은 틀릴 수 있고 공개된 학문 공간에서는 상대에게 오만하게 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진단의 확대가 아니라, 진단과 경청 사이에서 서로에게 유예를 주는 태도다.

반평등주의는 왜 다시 중심으로 왔는가

Naked Keynesianism — Phillip's Fein and the defense of inequality

부의 불평등을 자연스럽거나 바람직한 질서로 보는 지적 전통이 어떻게 현재의 정치·기술 권력과 만났는지를 다룬 서평이다. 사상사가 “무엇이 계속됐는가”를 보여준다면, 이 글의 비평은 “왜 지

금 다시 강해졌는가”를 묻는다.

[사실] 서평자는 김 필립스-파인의 신간이 존 애덤스, 윌리엄 그레이엄 섬너,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리처드 헌스타인을 거쳐 피터 틸 같은 기술 억만장자까지 미국 반평등주의의 계보를 추적한다고 소개한다. 이 계보는 평등의 언어와 함께 계급적 위계를 문명의 조건으로 보는 다른 미국 전통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평자는 사상의 연속성만으로 특정 시기의 정치적 부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후 황금기는 공공지출, 실질임금 상승, 강한 노동조합, 사회보장, 사회주의라는 대안의 압박이 만든 균형이었다. 1970년대 이후 그 균형이 무너지고 노동 약화, 완전고용 포기, 금융 규제완화, 공공지출 축소가 진행되면서 오래된 위계 논리가 새로운 정치적 기능을 얻었다는 것이다.

[해석] 이 비평의 핵심은 “오래된 생각”과 “새로운 조건”을 구분하는 데 있다. 억만장자가 우월감을 말한 것은 새롭지 않지만, 그 우월감이 정부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은 소유 구조와 계급 역관계가 바뀐 결과다. 따라서 기술 거부나 개인 품행 비판보다, 노동·자본·국가의 힘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된다. 사상사는 필요하지만, 정치경제적 조건과 결합될 때에만 현재를 설명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글이다.

혈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

books76 — 書評 / ポプラ社最新刊！家族になるって恥ずかしい『弟と暮らすことには』

출간 예정 소설 『弟と暮らすことには』를 다룬 일본어 서평이다. “혼자 살겠다”고 결심한 인물이 일곱 살 어린 의붓동생과 잠시 함께 살아보기로 하면서, 가족을 혈연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되는 행위로 다시 정의한다.

[사실] 서평자는 주인공 슈토(俊人)가 의붓동생 신타(新多)의 대학 입학을 계기로 동거를 제안하는 설정에 주목한다. 두 사람은 나이와 성격이 다르고 실제로 함께 지낸 시간도 적다. 서평자는 식탁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장면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본다. 혈연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니 당연히 이해한다”는 전제에 기댈 수 없고, 두 사람은 말을 고르고 거리를 재면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 같은 식탁에 앉는 작은 선택의 누적이다.

[해석] 이 서평은 큰 사건 대신 어색한 침묵과 짧은 본심을 소설의 동력으로 읽는다. “혼자 살겠다”는 결심과 “몇 년만 함께 살아보자”는 선택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모순이 인물을 살아 있게 만든다는 해석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원문 후반에는 커피 상품 소개

가 길게 이어져 서평과 광고의 경계가 흐려진다. 작품 해석 자체는 분명하지만, 독자는 추천의 독립성을 평가할 때 이 상업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집과 생략

이번 판의 집계는 8편이다. 분석 6편, 생략 2편이다. 생략한 글은 EerdWord 「Flourishing Faith | Meet This Book」(책 발췌 중심 홍보글)과 Naked Keynesianism 「The Empire Strikes Back: US Hegemony and the Latin American Far Right」(행사 연기 안내)이다. 두 편 모두 본문을 끝까지 읽은 뒤 제외했다.

Cafe Hayek, Dan Luu, Retraction Watch, Marginal Revolution, Noahpinion, NachDenkSeiten은 수집 방법 검토 대기로 이번 판에서 제외했다. 기존 차단 보류 6곳은 11/11 403 재확인 상태이며, 이번 작업에서 추가 요청은 하지 않았다.

근거

승인된 표준 방법으로 활성 16개 피드를 수집했다. 분석한 6편은 피드 본문과 원문 페이지의 앞·중간·뒤 5개 구간을 대조해 전문 수신을 확인했다. 정치와 학계 정책에 관한 주장은 각 원문 필자의 판단으로 귀속했다.

출처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1/mattering-as-resonance.html
- http://schwitzsplinters.blogspot.com/2026/11/why-do-i-want-myself-in-particular-to.html
- https://blog.computationalcomplexity.org/2026/11/fall-jobs-post-2026.html
- https://dailynous.com/2026/11/12/listening-and-diagnosing-guest-post/
- https://books76.hatenablog.com/entry/2026/11/12/120000
- https://nakedkeynesianism.blogspot.com/2026/11/phillips-fein-and-defense-of-inequality.html